

대한경제

VOL. 2, NO.03 (발행일 : 2026. 01. 19)

- 관련링크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01111644141450178>


- 키워드 : PC, 모듈러

엔알비, 국내 첫 ‘PC 특수구조벽체’ 성능 인증

기사입력 2026-01-12 05:00:21

- I 계단실 등 코어도 PC구조 적용
- I 100% 조립식 아파트 구현 가능
- I 모듈러 건축 고층화 본격화 예상
- I LH의 완도·고흥 공공주택 적용

엔알비 PC 기술 인증 현황		
	1차 인증(24.12.27)	2차 인증(26.01.09)
인증명칭	기동 일체형 PC 모듈러 접합부의 내진성능	내진성능을 확보한 PC 코어 및 특수 구조벽체(NRB+Hyper CORE)
대상	모듈러 유닛(거주 공간)	코어(엘리베이터/계단실)
구조시스템	PC 중간모멘트골조	PC 특수구조벽체
기술적해결	모듈 적용 시 기동과 보의 접합부 안전성 확보(스플라이스 슬리브, 커플러 활용)	현장 타설 PC 코어를 대체할 수 있는 고강도 조립식 PC 코어 구현
의의	"모듈을 안전하게 쌓을 수 있다" (중저층 확보)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다" (고층화 핵심 기술 확보)



완도중도지구 조감도 엔알비 제공

[대한경제=김민수 기자]아파트 거주 공간뿐 아니라 엘리베이터, 계단실과 같은 코어 부분까지 ‘조립식 PC(Precast Concrete·사전제작 콘크리트)’로 지을 수 있는 기술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11일 모듈러 건축 전문기업 엔알비(NRB, 대표이사 강건우)에 따르면 엔알비는 지난 9일 대한건축학회 건축기준센터로부터 ‘내진성능을 확보한 PC 중간 및 특수 구조벽체(NRB-Hyper CORE)’에 대한 기준적합성 인증을 획득했다.

이는 모듈러 건축물 코어에 적용하는 PC 중간 및 특수 구조벽체가 지진 발생 시 부러지지 않고 유연하게 버티는 능력(연성)이 있음을 인정받은 것이다. 현장타설 없이 건축물의 ‘척추’ 역할을 하는 코어까지 100% 공장에서 만들어 조립하는 PC 방식을 적용하더라도, 현장 타설 벽체와 동등 이상의 구조 성능을 낸다는 의미다.

그간 모듈러 건축은 구조적 안전성을 위해 건물의 척추 역할을 하는 코어 부분을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붓고 굳히는 재래식 ‘RC(철근콘크리트) 공법’에 의존해왔다. PC 모듈러 방식만으로는 고층 건물에 가해지는 지진 하중과 바람을 견디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공장에서 모듈러가 완성되더라도, 현장 공사가 늦어져 모듈러의 핵심 장점인 ‘빠른 공사 속도’를 달성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했다.

이번 인증을 통해 엔알비는 완전한 PC 모듈러 구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2024년 12월 엔알비는 대한건축학회로부터 ‘기동 일체형 PC 모듈러 접합부의 내진성능’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 이는 거주 공간인 모듈 유닛에 적용되는 PC 중간모멘트골조에 대한 성능 인증으로, 모듈 적용 시 유닛 간 접합부의 ‘연결’ 안전성을 확보한 것이다.

대한경제

- 관련링크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01111644141450178>

- 키워드 : PC, 모듈러

엔알비, 국내 첫 'PC 특수구조벽체' 성능 인증

2024년 인증이 튼튼한 '빠대(프레임)'를 완성한 것이라면, 올해 인증은 그 빠대를 지탱하고 건물을 고층으로 올릴 수 있게 하는 강인한 '척추(코어)'의 시공성과 구조 성능을 입증한 셈이다.

엔알비는 이번에 인증받은 신기술을 지난해 10월 수주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규모주택(완도중도·고흥도양)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완도와 고흥 같은 도서·해안 지역은 레미콘 수급이 불안정하고 인력 확보가 어려워 현장 타설 비중을 줄이는 것이 공사의 성패를 좌우한다. 엔알비는 이곳에 코어부터 거주 공간까지 100% 공장에서 제작해 조립하는 '풀(Full)-PC 모듈러 공법'을 적용해 품질 균일화는 물론 획기적인 공기 단축을 실현할 예정이다.

이번 인증은 모듈러 건축의 고층화를 위한 기술적 족쇄를 푼 것으로도 평가된다. 기존의 '보통 전단벽' 시스템으로는 법적으로 조립식 PC로는 일정 높이 이상 짓기 어려웠으나, 이번에 '특수 전단벽' 성능을 인정받음으로써 이론상 마천루 수준의 초고층 건축도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엔알비 관계자는 "이번 인증은 엔알비가 단순히 모듈을 만드는 제조사를 넘어 고층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책임지는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도약했음을 의미한다"며 "현재 정부와 공공이 추진 중인 대규모 모듈러 주택 공급 계획의 핵심은 '속도'와 '고층화'로, 층수 제한 없는 100% PC 모듈러 기술로 이러한 정책 목표를 실현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수기자kms@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대한경제

- 관련링크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01131700035060531>

- 키워드 : PC

차세대 고탄성 콘크리트 배합기술 화제

기사입력 2026-01-14 06:00:56

I 한국오션플랫폼 1년여만에 개발

I 구조물 변형 최소화 · 내구성 향상

I 특수골재 · 혼화재 최적 조합으로

I 높은 정탄성계수 구현 등 강점

I 불필요 과잉설계 방지 · 재료비 절감

I 건설 품질 · 구조적 안정성도 높여



정탄성계수를 측정하는 모습 / 한국오션플랫폼 제공

[대한경제=김민수 기자]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제조기업 한국오션플랫폼(구 한성PC건설)이 약 1년 5개월간의 연구개발 끝에 구조물의 변형은 최소화하고 내구성을 향상시킨 '고탄성 콘크리트 배합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고정밀 최첨단 반도체 공장 건설에 PC 기술이 주력 공법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고탄성 콘크리트를 활용해 건설 품질과 구조적 안정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한국오션플랫폼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된 고탄성 콘크리트는 품질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킨 배합기술이다. 정탄성계수(정하중 탄성계수) 50.6~56.3%, 동탄성계수(진동 탄성계수) 62.7~65.7%의 성능을 안정적으로 구현하는 등 기존 배합 대비 수치 변동성을 40% 이상 감소시켰다.

탄성계수는 재료의 변형 저항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값이 높을수록 하중에 의한 변형이 작다. 보통의 콘크리트 탄성계수가 3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안정성을 2배 이상 높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의 탄성계수를 높이려면 시멘트 사용량을 늘려 압축강도를 높여야 하지만, 재료비 증가와 시공 난이도 상승, 수화열 및 건조수축 문제 등의 부작용이 따른다. 한국오션플랫폼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슬래그를 비롯한 특수 골재와 혼화재의 최적 조합을 찾아 적정 수준의 압축강도에서도 높은 정탄성계수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대한경제

- 관련링크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011317000350605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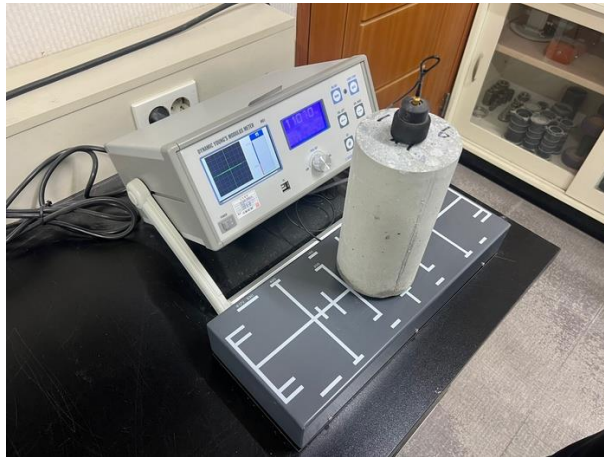
- 키워드 : PC

차세대 고탄성 콘크리트 배합기술 화제

콘크리트업계 관계자는 “보통 50MPa 이상의 탄성계수를 얻으려면 압축강도가 80~90MPa는 되어야 하는데, 한국오션플랫폼의 배합은 압축강도 70MPa에서도 그 이상의 탄성계수를 구현했다”며 “강도를 불필요하게 높이지 않고도 구조적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효율적 고탄성’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기술 개발은 국내 주요 반도체 공장 프로젝트에서 고탄성 콘크리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추진됐다. 최첨단 반도체 공장에서는 고사양 생산장비의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미세한 진동까지 제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구조물 자체의 강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한국오션플랫폼 관계자는 “반도체 공장에서는 50MPa 이상의 고탄성 콘크리트가 요구된다”며 “단순히 한 가지 배합이 아니라 프로젝트별 특성에 맞춰 조정 가능한 다양한 레시피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동탄성계수를 측정하는 모습. / 한국오션플랫폼 제공

한국오션플랫폼은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4단계에 걸쳐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했다. 1단계에서는 슬래그의 성능을 검토하고, 2단계에서는 분체량과 성분계 조절을 통한 영향도를 분석했다. 3단계에서는 골재, 시멘트, 추가 혼화재 등 재료 대체에 따른 영향을 평가했다. 4단계에서는 경제성 제고와 탄성계수 증진 재료를 추가 검토해 최종 배합을 완성했다.

총 97회의 시험을 거쳐 도출된 이번 배합은 압축강도 67~71MPa(재령 28일 기준)를 달성하면서도, 초기 개발 배합 대비 강도를 약 20MPa 낮춰 경제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개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1, 2차 측정을 마쳤으며, 자체적으로 정탄성계수 및 동탄성계수 측정 장비를 구매해 지속적인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연 1회 측정기기 검교정을 통해 정확도를 유지하며, 현재 30회 이상의 검증 시험을 진행 중이다.

이번 개발의 또 다른 성과는 다양한 탄성계수 구간별 배합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점이다. 한국오션플랫폼은 압축강도 55.2~69.2MPa, 정탄성계수 36.6~56.3GPa, 동탄성계수 43.9~65.7GPa 등에 이르는 광범위한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프로젝트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배합 설계가 가능해졌다. 마치 옷을 구입할 때 S~XL 사이즈를 고르듯, 공사 입장에서 건축물의 용도와 구조에 따라 적절한 강성 등급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한경제

- 관련링크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01131700035060531>

- 키워드 : PC

차세대 고탄성 콘크리트 배합기술 화제

예를 들어 하중이 크게 집중되는 초고층 건물의 핵심 기둥에는 최고 성능(정탄성계수 56GPa급)의 콘크리트를, 상대적으로 하중이 적은 일반 구조물에는 중간 성능(정탄성계수 40GPa급)의 콘크리트를 적용할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설계 단계에서 구조해석 결과에 따라 최적의 탄성계수 선택이 가능해 구조 안전성은 확보하면서도 경제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불필요한 과잉설계를 방지하고 재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뮬레이션에서 전체 물량의 30%를 최고 성능으로, 나머지는 중간 성능으로 배합한 결과 재료비는 약 15~20% 절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오션플랫폼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된 배합기술은 반도체공장뿐 아니라 해양구조물, 초고층 건물, 장대교량 등 고성능이 요구되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한 이번 기술개발이 국내 PC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수 기자 kms@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대한경제

- 관련링크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01141729196290740>

- 키워드 : PC

물은 더 많이 담고, 빼대는 더 튼튼 PC·PP 장점 합친 하이브리드 구조

기사입력 2026-01-15 06:01:19

I [주목! 신기술] 박스형 플라스틱 소규모 저류조

I 한국수안 개발... 재난안전신기술 2025-29호

I 레진콘크리트 기둥 세워 안전성·내구성 확보

I 공극률 95%... 사람 다니는 점검 통로 마련



작업자가 신기술의 유지관리 통로부 조립을 마감하고 있다. /사진= 한국방재협회 제공

[대한경제=손민기 기자]시공 속도가 빠르고 저류 용량과 유지관리 기능을 동시에 확보한 저류조 시공 기술이 최근 재난안전신기술로 지정됐다.

14일 한국방재협회에 따르면 한국수안이 개발한 '모듈식 부품의 조립결합방식을 적용한 내부 이동 통로가 있는 박스형 플라스틱 소규모 저류조 공법'은 재난안전신기술 제2025-29호로 지정됐다. 신기술은 특허 '혼합형 빗물 저류조(101030605)'를 기반으로 한다.

저류조는 집중호우 시 빗물을 임시 저장한 뒤 단계적으로 배출해 침수 피해를 줄이거나, 저장된 물을 재활용해 비상 용수를 확보하는 시설이다. 저류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공극률로, 전체 부피 중 실제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의 비율을 의미한다.

현재 저류조 시공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방식과 플라스틱(PP)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PC 방식은 내구성이 뛰어나고 유지관리도 용이하지만, 공장에서 제작한 콘크리트 부재를 설치하려면 대형 크레인이 필요하다. 또한 벽체 두께로 인해 공극률은 약 80% 수준에 머문다.

대한경제

- 관련링크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01141729196290740>

- 키워드 : PC

물은 더 많이 담고, 빼대는 더 튼튼 PC·PP 장점 합친 하이브리드 구조

PP 방식은 가볍고 조립이 간편하다. 플라스틱이라 구조체 두께가 얇아 공극률도 약 95%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사람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따로 만들 수 없어 유지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토사나 찌꺼기가 쌓여 시간이 갈수록 공극률은 줄어들고, 수질오염 및 악취도 발생시킨다.

신기술은 PC와 PP의 장점을 두루 갖춘 하이브리드 기술이다. 레진콘크리트 기둥과 주철(구상흑연주철) 패널을 사용했다.

레진콘크리트 기둥은 일반 콘크리트 대비 압축강도가 3~4배 높아 플라스틱 블록과 결합해 직접 하중을 지탱하며 내구성과 구조 안전성을 확보한다. 저류조 내부에는 폭 750mm·높이 1.5m 이상의 통로를 설치해 작업자가 이동하며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바닥에는 고강도 주철 패널을 적용해 안전성을 높였다. 하중을 직접 받지 않는 공간에는 PP 방식처럼 플라스틱 블록을 짝 채워 넣어 공극률은 95% 이상으로 확보했다.

신기술은 서부산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공사, 인천 연수구 함박마을 문화 복지센터 신축공사 등에 적용됐다. 기존 PP 방식 대비 공사기간은 약 6일로 비슷하지만, 공사비는 최대 5%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수안 관계자는 “정부의 국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빗물저류조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며 “신기술을 적용하면 플라스틱, 주철, 콘크리트산업의 활성화 및 각 업계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손민기 기자 sonny906@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대한경제

- 관련링크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01142241312100753>

- 키워드 : 모듈러

유창, 한양대 ERICA캠퍼스에 3.6억 규모 현물 기부

기사입력 2026-01-15 06:01:30

[대한경제=김민수 기자]건축내장재 및 모듈러 전문업체 유창(회장 조용선·왼쪽 다섯 번째)은 현장 중심의 건설기술 교육과 산업 연계를 위해 교육시설 증축에 필요한 자재를 대학에 기부했다.

유창은 14일 경기 안산시 한양대학교(총장 이기정·왼쪽 네 번째) ERICA 캠퍼스에서 발전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행사에서 유창은 우레탄 패널 등 3억6000만원어치의 현물을 기부했다. 이는 한양대 ERICA 스마트컨스트럭션교육관 증축 공사에 사용될 예정이다. 해당 교육관 증축은 산·학·연 협력 공간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대학 교육지원과 실무형 인재 육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다.

이기정 한양대 총장은 “이번 후원은 기업의 혁신이 사회와 인재 양성으로 확장되는 모범 사례”라며 “대학과 산업이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산학협력의 이상적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조용선 유창 회장은 “이번 발전기금은 스마트컨스트럭션교육관 조성을 통해 미래 건설산업, 특히 모듈러 산업을 이끌 인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교육과 산업 발전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민수 기자 kms@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대한경제

- 관련링크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01121317377410273>

- 키워드 : BIM, 스마트건설

건설기술인協,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지방으로 확대

기사입력 2026-01-12 13:17:55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박종면)는 '청년 예비건설기술인을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을 지방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협회는 현장 실무역량을 갖춘 청년 건설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민간기업이 함께하는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와 연계한 교육을 기획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서울시립대 등 수도권 소재 건설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 데 이어 협회는 지난 5~9일까지 부산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에서 10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첫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설계 및 시공 BIM(건설정보모델링) 활용 방법 △건설 자동화 및 로봇기술 △건설기술 AI(인공지능) 실무적용 사례 등을 폭넓게 다루고, 직무 멘토링과 퍼스널 이미지 메이킹, 자기소개서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협회는 교육 이후 수료생을 대상으로 '스마트 건설기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심사를 거쳐 국토부장관상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정석한 기자 jobize@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대한경제

- 관련링크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01161304490740001>

- 키워드 : BIM

우미건설, 메이사와 디지털 트윈 기반 현장 운영 기술개발

기사입력 2026-01-18 10:52:15

I 2024년부터 축적한 현장 피드백 반영 플랫폼 고도화

김혜원 우미건설 상무(가운데)가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우미건설 본사(린스퀘어)에서 메이사와 ‘시공 기록 자동화 및 디지털 트윈 기반 현장 운영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최석원 메이사 대표(오른쪽), 오경근 우미건설 팀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미건설 제공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우미건설은 공간정보 전문 업체 메이사와 ‘시공 기록 자동화 및 디지털 트윈 기반 현장 운영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6일 밝혔다.

메이사는 2017년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국내 건설사 다수에 드론·위성 데이터 기반 디지털 트윈 솔루션을 공급하는 건설 데이터 플랫폼 개발 기업이다. 앞서 우미건설은 2024년부터 전 현장에 메이사의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을 도입해 운영해온 가운데, 이번 협약은 그동안 축적한 현장 피드백을 반영해 플랫폼을 한 단계 고도화하기 위한 취지다.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우선 △현장 업무 최적화 기능 강화 △시공 기록 자동화 구축에 나선다. 장기적으로는 드론, 360도 카메라, 폐쇄회로 TV(CCTV), 건물정보모델링(BIM)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 시공·안전·품질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기반 현장 통합 운영 체계를 공동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김혜원 우미건설 상무는 “건설 현장에서 스마트 기술은 안전 관리부터 품질 향상에 이르기까지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라며 “우미건설의 시공 노하우와 메이사의 기술력을 더해 새로운 차원의 현장 관리 표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무 기자 jmlee@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대한 전문건설신문

- 관련링크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321510>

- 키워드 : OSC, 모듈, 스마트건설

[논단] 건설기업의 생존 경쟁력은 '협업 전략'이 좌우

기자명 이복남 서울대 교수 입력 2026.01.12 07:00 0

건설산업은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생산 주체가 지나치게 분산 및 파편화돼 있고, 주문 생산 중심의 맞춤형 구조이며, 표준화와 반복 생산이 어렵다는 한계다. 이런 한계 때문에 건설은 타 산업 대비 기술 발전 속도가 더디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제 해결 목표로 등장한 미국의 유니콘 기업 '카테라'가 일괄생산체계를 구축하려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로 문을 닫았다. 기획·설계·시공·생산 프로세스를 제조업 방식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는 아주 매력적이었다. 시장을 석권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수요자 요구가 다양하고 분산된 건설시장 특성을 과소평가한 전략적 한계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다.

글로벌 시장을 보더라도 한 개 기업이 전체 공정을 일괄 수행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 미국 CSI(건설시방서 연구원) 분류체계는 발주·작업 단위 중심으로 정교하게 세분돼 있고, 국내 역시 수천 개 공종으로 나뉘어 있다. CSI는 공종 기반 작업 단위를 기본으로 분류했고 국내는 원가 산정을 위한 원자재(시멘트) 혹은 공종(콘크리트) 단위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에는 원자재와 공종, 그리고 작업분류가 시방서와 연관성이 낮은 편이다. 분류 원칙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1개 기업이 모든 공종을 소화하기보다 다양한 주체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업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시사한다. 발주 방식 또한 턴키와 분리 발주라는 두 축이 있지만, 어느 방식이든 결국 수평·수직 협력체계의 선택이다. 컨소시엄과 하도급은 이러한 협업을 제도적으로 구현한 결과이자, 기업이 한계를 인지하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의 협업 방식이 다르다. 글로벌 기업은 책임과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생산 역량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컨소시엄 방식을 선호한다. 수직관계보다 수평적 협업 체계를 중시한다. 권한과 역할, 그리고 책임을 일치시키는 방식이다. 국내 기업은 단독 수주 후 하도급 체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국내 계약법은 지역업체와 약자 보호를 위해 지분 중심의 컨소시엄을 의무화시켜 놓았다. 문제는 기술 역량이 취약한 상태에서 단순히 수주를 위한 컨소시엄에 참여하면 '올'의 지위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하도급 구조에서는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과도한 컨소시엄 업체 수나 역량 부족으로 지분만 챙기고 실제 시공에 참여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천 개(표준품셈 1459개)의 공종을 일괄 수행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해 하도급이 1차 거래에서 종결되기보다 다단계 하도급으로 호를 가능성이 높다. 일본 건축공사에 흔하게 발생하는 5~7단계 다단계 하도급도 이런 이유로 해석된다. 카테라와 달리 프랑스 방식 건설의 경우 일괄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700여개의 계열사를 두는 극히 드문 예가 발견되지만 이 역시 하도급 계약 건수가 줄어도 완벽한 일괄생산 역력은 구축하지 못했다. 협업이 경쟁력 강화 수단이 되려면 호혜적 관계와 기술력 기반의 역할 분담이 전제돼야 한다.

미래 시장의 변화는 이러한 협업 구조를 더욱 중요하게 만든다. 2018년 국토부가 과감하게 스마트건설 로드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설계자동화 및 시공의 탈 건설현장을 선언했다. 모듈·OSC 등 건설현장의 제작 공장화·제조업화 흐름이 가속화되면, 설계와 시공의 경계가 흐려지고 수평적 협업 없이는 대응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거래관계가 아니라 파트너십 기반의 협업 체계로 전환해야 함을 의미한다. 1개 기업이 모듈·OSC 능력을 확보하려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건설이 수주산업이기 때문에 투자에도 불구 시장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 한계 극복을 위해 모듈·OSC 전문기업이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에서 일괄생산 체계의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실증적 사례가 확인된 상황에서, 생존을 좌우할 변수는 결국 '혼자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잘 협업할 수 있는가'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기업 단독으로

대한 전문건설신문

- 관련링크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321510>

- 키워드 : OSC, 모듈, 스마트건설

[논단] 건설기업의 생존 경쟁력은 '협업 전략'이 좌우

일괄생산 체계를 갖추려면 수주가 아닌 '주문과 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충분한 시장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경쟁이 기본인 자유경제 체제에서 기대하기 불가능한 과제다.

앞으로 건설기업의 경쟁력은 개별 기업의 역량을 넘어, 생태계 전체와 협업 전략과 상호 신뢰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 협력업체가 아닌 플랫폼과 이용 기업 간의 수평적 협업 전략이 곧 기업의 미래이자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자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복남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산학협력중점 교수

이복남 서울대 교수 bnleek@snu.ac.kr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전문건설신문

- 관련링크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321563>

- 키워드 : BIM, 스마트건설

건설기술인협회, 실무 중심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지방 확대

김경중 기자 입력 2026.01.12 16:02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지난해 처음 시작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청년 예비건설기술인을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을 지방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협회는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비해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 실무역량을 갖춘 청년 건설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해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와 연계한 교육을 기획했다.

지난해 상반기 처음으로 서울시립대 등 수도권 소재 건설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높은 경쟁률 속에 참가신청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다.

이에 협회는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부산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에서 부산지역 대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첫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국토교통부와 부산시의회, 국토안전관리원이 후원했으며, 동아대(건설시스템공학과 이재강 교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원활하게 운영됐다.

교육에서는 △설계 및 시공 BIM 활용 방법 △건설 자동화 및 로봇기술 △건설기술 AI 실무적용 사례 등 최신 스마트 건설기술 전반을 폭넓게 다뤘으며, 학생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직무 멘토링과 퍼스널 이미지 메이킹, 자기소개서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협회는 교육 이후 수료생을 대상으로 ‘스마트 건설기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심사를 거쳐 국토부 장관상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전국 대학들과 협력해 건설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경중 기자 kkj@kosca.or.kr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링크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327607>

- 키워드 : BIM

한미글로벌, 한전기술과 英 터너애타운젠드 손잡고 글로벌 원전사업 확대 나섰다

하중숙 기자 승인 2026.01.12 08:48

▶ 한미글로벌-한국전력기술-터너애타운젠드, 글로벌 원자력 사업 전략적 제휴 협약

▶ ‘한전기술’ 원전 설계 능력·‘터너애타운젠드’ 원전 사업관리 노하우 시너지 기대

▶ ‘설계-엔지니어링-사업비 관리’ 원전사업 통합 자문… 패키지 역량↑ 글로벌 시장 도전

한미글로벌 김용식 사장, 한국전력기술 김태균 사장, 터너애타운젠드 토마스 에인도우 상무(왼쪽부터)가 글로벌 원자력 사업 전략적 제휴 협약(SAA)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미글로벌 김용식 사장, 한국전력기술 김태균 사장, 터너애타운젠드 토마스 에인도우 상무(왼쪽부터)가 글로벌 원자력 사업 전략적 제휴 협약(SAA)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도일보 하중숙 기자] 글로벌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이 한국전력기술(사장 김태균/이하 한전기술)과 英 터너애타운젠드와 손잡고 세계 원전시장 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미글로벌은 원자력발전소 설계 및 엔지니어링 전문기업 한국전력기술과 세계적인 PM 전문기업 터너애타운젠드와 함께 글로벌 원전 사업 기회 창출을 위한 전략적 제휴 협약(SAA, Strategic Alliance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6월 한미글로벌과 한전기술의 원전사업 협력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원자력 분야의 글로벌 사업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양사가 국내외 원전 시장에서 공동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미글로벌은 전세계 66개국 3,200여 개 건설 프로젝트 PM 수행 경험 등 글로벌 건설사업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지난해 8월 루마니아 체르노보다 원전 1호기 계속 운전 사업 PM 용역을 수주하며 원전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한전기술은 원전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링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빛 원전과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등 국내외 다수의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했으며, 발전소의 유지보수(O&M)와 함께 원전 건설의 사업주 지원용역(OE, Owners Engineering)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터너애타운젠드는 영국에 본사를 두고 전세계 62개국 247개 지법인을 운영하는 건설사업관리(PM) 및 원가관리(QS) 분야 글로벌 기업이다. 터너애타운젠드는 현재 영국의 신규 원전인 ‘힝클리 포인트 C’와 ‘셀라필드 원자력 단지’의 통합사업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영국 정부의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구축 프로그램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원전사업 분야에서 높은 기술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번 전략적 제휴 협약을 통해 3사는 각 사의 강점을 결합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경쟁력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한미글로벌의 글로벌 건설사업관리 역량과 한전기술의 원전 설계·엔지니어링 및 사업주지원용역(OE) 역량과 함께 터너애타운젠드의 글로벌 프로젝트 컨설팅 및 원전 사업비·일정 관리 역량을 통해 원전 프로젝트 전 과정에 대한 통합 사업관리 솔루션을 구현할 방침이다.

특히 3사는 글로벌 원전 프로젝트에서 요구되는 ‘설계-엔지니어링-사업관리-사업비와 일정 관리’의 통합 패키지 제안 역량을 확보함으로써 유럽, 중동, 아시아 등 주요 글로벌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관련링크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327607>

- 키워드 : BIM

한미글로벌, 한전기술과 英 터너애타운젠드 손잡고 글로벌 원전사업 확대 나섰다

3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각 사의 전문가를 상호 파견해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유망 사업 정보를 상호 교류하며 공동 수행 기회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트윈,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등 디지털 기술과 AI(인공지능) 등을 접목한 첨단 기술 기반의 데이터 중심 원전 사업관리 체계 고도화에도 협력키로 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원전 프로젝트의 공기 단축과 비용 절감, 리스크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인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3사는 국내외 원전 신규 건설, 기존 설비 개선, 사후관리 등 다양한 시장에서 공동 사업 기회를 적극 모색키로 했다.

아울러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원전 해체(폐로), 방폐물 처분장 건설 등 원전 설비개선 및 사후관리 영역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원전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신규 시장 개발에도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국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종숙 기자



- 관련링크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327648>

- 키워드 : BIM, 스마트건설

상아매니지먼트컨설팅, 가덕도신공항건설 BIM통합PMIS 패키지납품 사업 계약체결... 건설IT 혁명 선도한다

하중숙 기자 승인 2026.01.12 14:20

I 상아 'TCIC기반 PMS Platform' 수주... 가덕도신공항 특수성·즉시 운영 등 요건 부합 기술력 자랑

PMIS, BIM 통합화 체계 운용의 서막... 이제는 구축 아닌 사서 쓰는 시대

TCIC PMS Platform기반 'BIM통합PMIS' 패키지 첫 공급사례 '의미'



가덕도신공항건설 사업관리시스템 'G-PMIS' 로그인 화면시안.

[국토일보 하중숙 기자] 대한민국 대표 건설IT 전문기업 상아매니지먼트컨설팅이 국내 최대규모의 해상매립 공항건설 프로젝트인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의 'BIM통합PMIS' 구축에 나섰다.

상아매니지먼트컨설팅은 최근 한국공항공사가 발주한 '가덕도 신공항건설사업 BIM업무 위탁사업 PMIS솔루션 구매설치'사업을 수주,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 사업수행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한 'BIM 통합형 PMIS' Package 구매설치방식의 새로운 발주형태로 가덕도 신공항의 특수성 즉 'BIM 중심의 정보체계를 갖춘 국제기준의 PM Process와 즉시 운영성-BIM통합기능 완벽성-시스템확장 유연성이 보장된 PMIS Package'라는 기준 요건이 사전 정의돼 발주, 제안된 패키지의 심사평가로 제품을 선택하는 절차로 이뤄졌으며 이러한 요건에 부합한 'TCIC기반 PMS Platform'을 제시한 상아가 수주했다.

BIM과 연동되는 4차원적 PMS 기술 최초 적용사례

BIM Data와 동기화된 PMS 운용시대 개막

가덕도 신공항건설은 국내 최대규모의 해상매립 공항건설사업으로 품질과 안전의 확보가 특히 중요한 사안으로 보다 철저하고 생산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BIM기반 설계 및 시공의 통합관리가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중장기적으로 'BIM통합PMIS'의 실현을 위한 기획과 준비를 해 왔으며, 2021년 표준 BIM CDE구축을 완료하고 금번 PMIS의 기능성과 BIM Viewer의 통합기능이 완비된 상아의 PMS를 Package방식으로 구매 설치해 BIM과 일체화 연동되는 국내 최초의 PMIS를 성공시킴으로써 건설IT의 근원적 발전에 큰 획을 그게 됐다.



- 관련링크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327648>

- 키워드 : BIM, 스마트건설

상아메니지먼트컨설팅, 가덕도신공항건설 BIM통합PMS 패키지납품 사업 계약체결... 건설IT 혁명 선도한다



상아의 TCIC플랫폼에 의해 구성된 'BIM통합PMS' 화면. BIM과 PMIS Data가 상호 Sync된 입체적 환경의 통합 정보체계로 혁신적 관리효율을 제공한다.

단기성·특수성 건설사업 특성 고려한 PMS 발주방식의 변화

통합형 완성제품의 PMS 구매설치 방식으로 전환

또한 가덕도 신공항건설사업 등 대규모 사업의 건설사업관리시스템은 요구기능이 고차원적이며 광범위한데 비해 시스템을 도입 즉시 가동돼야 하는 시급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회성의 사업특성 상 PMIS 구축방식이 인력이 장기간 투입돼 개발해 내는 SI(시스템통합)구축 방식보다는 필요한 기능들이 이미 완성된 Package를 선별 도입, 부분적인 Customization을 통해 사용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기존 발주방식이 개발 인력투입 방식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글로벌 제품 ERP SAP등이 패키지 구매방식인 것과 같이 이제 국내도 건설IT에 기반한 패키지 구매설치 방식이 요구, 이번 가덕도 신공항건설 'G-PMIS'의 도입사례를 통해 발주형태에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BIM통합PMIS'의 등장은 단순한 하나의 기법 사례가 아닌 건설IT의 원천적 염원, 즉 설계도면으로부터 설계-건설-공정-구매-시공-품질 등 건설 전 과정을 아우르는 근본적이며 통합적 건설정보화 목표가 그간 2D설계로 제한적이었던 것이 3D BIM의 전면적 보급에 따라 정보화의 근원적 문제가 해결됐다. 또한 그간 오랜 사용으로 축적된 PMIS의 고도화된 기능과 통합됨으로써 드디어 'CIC(Computer Integrated Construction)의 완성'이라는 큰 변화의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게 상아 측 설명이다.

각종 사례시스템 표준화 집대성한 Mega PMIS/EPMS Platform TCIC

빠르게 완벽한 PMS를 Setting... 즉시 사용

상아는 지난 30여년간 PMIS의 지속적 개발 노력을 거듭해 일반 및 EPC-Plant를 포함한 모든 건설사업과 주요 국책사업에서 출품 상아의 시스템이 선택,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 관련링크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327648>

- 키워드 : BIM, 스마트건설

상아매니지먼트컨설팅, 가덕도신공항건설 BIM통합PMIS 패키지납품 사업 계약체결... 건설IT 혁명 선도한다

특히 상아가 최근 개발해 발표한 TCIC는 그간의 모든 사례기능을 표준화 집대성하고 자체 개발한 BIM뷰어를 탑재한 PMS Platform으로 건설사업에 필요한 모든 PM/CM Process 및 기능을 제시하고 있어 사용자는 다수의 사례 기능을 검토하고 학습할 수 있으며 사업의 규모-특성-요구범위에 따라 원하는 기능을 선택해 짧은 시간 내에 완벽한 PMS를 조합해 낼 수 있는 패키지 플랫폼으로 PM/CM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BIM통합PMIS, 4차 산업혁명기의 견고한 Infra

AI-ROBOT-IoT-Multimedia 통합형 Smart건설의 초석

4차산업혁명기의 건설산업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설계 및 시공의 자동화, 로봇화로 기존의 시간과 비용과 품질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한 각 부문별 연구개발이 요처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공종별 로봇이 이미 상용화되고 있다.

상아 관계자는 “이러한 AI기반 로봇이나 IoT-Multimedia들은 BIM통합PMIS에 연계돼 Digital Twin에서 PMIS의 계획Data에 따라 운용되고 통제될 것이며 실적Data 또한 PMIS로 취합 분석되는 통합적 정보체계로 스마트건설 System의 완성을 이뤄 ‘BIM통합PMIS’는 미래 건설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시스템이 될 것”이라며 “상아는 ‘가덕도신공항건설 BIM통합PMIS’ 구축 프로젝트도 성공사업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국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종숙 기자



- 관련링크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327670>

- 키워드 : BIM, 스마트건설

건설기술인協, 실무 중심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지방으로 확대

김현재 기자 승인 2026.01.12 23:05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박종면)가 ‘청년 예비건설기술인을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을 지방으로 확대한다.

협회는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비해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 실무역량을 갖춘 청년 건설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해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와 연계한 교육을 기획했다.

지난해 상반기 처음으로 서울시립대 등 수도권 소재 건설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높은 경쟁률 속에 참가 신청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큰 관심을 이끌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부산 동아대학교 부민 캠퍼스에서 부산지역 대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첫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의회, 국토안전관리원이 후원했으며, 동아대(건설시스템공학과 이재강 교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원활하게 운영됐다.

교육에서는 ▲설계 및 시공 BIM 활용 방법 ▲건설 자동화 및 로봇기술 ▲건설기술 AI 실무적용 사례 등 최신 스마트 건설기술 전반을 폭넓게 다뤘으며, 학생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직무 멘토링과 퍼스널 이미지 메이킹, 자기소개서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협회는 교육 이후 수료생을 대상으로 ‘스마트 건설기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심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 상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국 대학들과 협력해 건설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재 기자



- 관련링크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327800>

- 키워드 : BIM

‘2026 건설인 신년인사회’ 성료

김현재 기자 승인 2026.01.14 16:54

I 김민석 국무총리,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I 건설단체장 및 건설업체 대표 등 700명 참석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한승구)가 병오년 새해를 맞아 오늘(14일) 서울 논현동 소재 건설회관에서 ‘2026 건설인 신년인사회’를 개최, 성료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담은 신년인사, 건설인 격려를 위한 신년 영상 및 덕담, 신년 떡 자르기 등 순으로 진행됐다.

한승구 회장은 신년인사에서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대한민국 건설산업이 다시 도약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며 “건설산업이 지난 80여 년간 국가 경제 성장과 국민 삶의 기반을 마련하며 GDP의 약 15%, 200만 명의 고용을 책임지는 핵심 산업으로서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고금리, 주택·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건설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역대 최대 규모의 건설업체 폐업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한 회장은 “기후위기 대응, 탄소 감축, AI를 비롯한 디지털 전환 등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안전은 규제를 넘어 기업 존속을 좌우하는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 회장은 건설산업의 재도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대재해 근절 ▲주택·부동산 시장 안정화 ▲스마트 기술 중심의 산업 혁신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과 미래 인재 확보 등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안전 시스템 고도화와 적정 공사비·공기 확보를 통해 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고 정부·국회와 협력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품질 향상을 통해 국민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확대와 세제 개선 등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AI, BIM, IoT 등 디지털 기술을 건설 전 과정에 접목해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건설동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청년인재 유입과 산업 이미지 개선에 힘쓰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한 회장은 “건설산업은 여전히 무한한 저력과 가능성을 지닌 산업”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 속에 건설산업이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건설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건설의 역사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 관련링크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327800>

- 키워드 : BIM

‘2026 건설인 신년인사회’ 성료

역사이고 대한민국 성장의 역사였다”며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토를 잇고, 산업을 일으키고 삶의 터전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일궈낸 주역이 바로 건설인 여러분이다”며 격려했다.

아울러 “K-건설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하겠다. 반드시 함께 새로운 도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신년회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이탁 국토교통부 차관,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권영진 의원, 박범계 의원, 박덕흠 의원, 송석준 의원, 김영진 의원, 조승래 의원, 엄태영 의원, 서범수 의원, 김영배 의원, 김승원 의원, 엄태영 의원, 박희승 의원, 박정현 의원, 손명수 의원, 안태준 의원, 김준혁 의원, 장종태 의원, 황정아 의원, 백승보 조달청장 및 건설단체장, 건설업체 대표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국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재 기자



- 관련링크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327895>

- 키워드 : BIM

우미건설, 메이사와 디지털 트윈 기반 현장운영 MOU 체결

이경운 기자 승인 2026.01.16 09:32

I 다양한 데이터 통합·분석... 시공·안전·품질 관리에 활용

우미건설은 최근 서울 강남 린스퀘어에서 공간정보 전문 기업 메이사와 '시공 기록 자동화 및 디지털 트윈 기반 현장 운영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우미건설 김혜원 상무와 메이사 최석원 대표 등 양사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메이사는 2017년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국내 건설사 다수에 드론 및 위성데이터 기반 디지털트윈 솔루션을 공급하는 건설 드론 데이터 플랫폼 개발 기업이다.

우미건설은 지난 2024년부터 전 현장에 메이사의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을 도입해 운영해 왔으며, 이번 협약은 그동안 축적된 현장 피드백을 반영해 플랫폼을 한 단계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현장 업무 최적화 기능 강화, 시공 기록 자동화 구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드론, 360도 카메라, CCTV, BIM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시공·안전·품질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기반 현장 통합 운영 체계'를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우미건설은 스마트 건설 기술의 실증과 내재화에 꾸준히 투자해 온 기업이다. 특히 자체 개발 AI인 '린GPT', 드론 기반 관제 시스템 '메이사(회사 이름과 동일)', '스마트 리바체커(철근 점검 프로그램)'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등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우미건설 김혜원 상무는 "건설 현장에서의 스마트 기술은 안전 관리부터 품질 향상에 이르기까지 없어서는 안될 필수 요소"라며, "우미건설의 시공 노하우와 메이사의 기술력을 더해, 새로운 차원의 현장 관리 표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경운 기자



- 관련링크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327921>

- 키워드 : BIM

현대건설, 상반기 '취업완성 아카데미' 기술교육생 모집

이경옥 기자 승인 2026.01.16 14:56

▶ 플랜트전기·계장·건설공정공사관리·안전보건관리 등 현장 맞춤형 10개 직무 모집

▶ 국내 건설사 유일의 건설 전문인력 양성기관

▶ 고용노동부 '5년 인증 우수훈련기관' 선정

▶ BIM·스마트시티 등 미래형 커리큘럼 강화

▶ 디지털·융합형 건설 인재 양성

현대건설 기술교육원
취업완성 아카데미

26년 상반기 교육생 모집

1차 모집 01.12 - 03.08

- 플랜트전기·계장실무 5개월
- 안전보건관리 5개월
- 건설품질관리 5개월
- 건설공정공사관리 7개월

2차 모집 01.26 - 03.29

-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4개월
- 스마트시티 5개월

3차 모집 03.30 - 05.31

- 전기설비시공실무 5개월
- BIM건설관리 6개월
- 스마트플랜트 5개월
- 스마트안전 5개월

지원 문의 (edu.hdec.co.kr)

현대건설기술교육원

현대건설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현대건설 기술교육원이 '2026년 상반기 취업완성 아카데미' 기술교육생 모집을 실시한다.



- 관련링크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327921>

- 키워드 : BIM

현대건설, 상반기 '취업완성 아카데미' 기술교육생 모집

이번 상반기 모집은 최근 건설 현장 트렌드와 산업 수요를 반영한 실무 중심 교육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총 10개 직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플랜트전기·계장실무 ▲안전보건관리 ▲건설품질관리 ▲건설공정공사관리 등 4개 과정은 3월에 개강하고,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스마트시티 등 2개 과정은 4월에 개강할 예정이다.

▲전기설비시공실무 ▲BIM건설관리 ▲스마트플랜트 ▲스마트안전 등 4개 과정은 3월부터 순차적으로 모집을 진행해 6월부터 교육을 시작한다.

모든 교육 과정은 고용노동부와 현대건설이 함께하는 국비지원 취업 교육과정으로 교육비, 실습재료비, 교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정 금액의 자비 부담(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의거)이 발생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이 가능한 자이며 전형을 통해 선발된 교육생에게는 소정의 훈련장려금 혜택도 주어진다.

교육 수료자는 현대건설을 비롯해 동종 건설사 및 협력사로의 취업 연계를 적극 지원받을 수 있다. 주요 근무지로 디에이치 클래스트, 신한울 원자력 3·4호기 등 국내 주요 건설 현장은 물론, 사우디 및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 7·8호기 등 글로벌 프로젝트 현장에서도 핵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대건설 기술교육원은 1977년 개원 이래 현재까지 약 4만여 명의 건설 기술 인력을 배출한 국내 건설사 유일의 전문 교육기관이다. 고용노동부로부터 '5년 인종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됐으며,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두 차례 수상하는 등 건설 기술 인력 양성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건설 현장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흐름에 맞춰 BIM(디지털 건축정보모델링), 스마트시티, 스마트안전 등 미래형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AR·VR(증강·가상현실) 기반 실습 교육과 UAM(도심항공교통) 버티포트 등 첨단 기술 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 건설 시대에 부합하는 현장 맞춤형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취업완성 아카데미 지원은 현대건설 기술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교육과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홈페이지와 매주 수요일 라이브로 진행되는 공식 유튜브 채널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 받을 수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건설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화가 본격화되면서 전문 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현대건설은 축적된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과 체계적인 취업 연계를 통해 즉시 현장에 투입 가능한 건설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경옥 기자

